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돼라.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9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윤) 4월 26일)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20살 포교사단 '불국토 건설' 서원

6월 10일 출범 20주년 기념식 열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최대 포교조직인 포교사단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법 정진의 원력을 모은다.

포교사단(단장 방창덕)은 6월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공연장에서 포교사단 출범 20주년 및 제7회 포교사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폭 축소된 규모로 진행됐다. 행사는 1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이어졌다.

조계종 포교사의 역사는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수를 통해 200여 포교사들이 배출됐지만 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조직체는 요원했다. 1995년 포교사 고시가 실시되며 자격을 갖춘 포교사가 배출됐으며, 이들을 한데 모으는 포교사단이 2000년 3월 8일 출범했다. 출범 당시 1200명의 포교사에 7개 지역단을 갖췄다. 이후 현재 국내외 14개 지역단에서 5000여 포교사들이 활동하는 한국불교 최대 재가단체로 성장해왔다.

현재 포교사단은 서울, 부산, 대구를 비롯해 미국 LA까지 14개 지역단 산하 340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1만 3000여 포교사가 일종의 동문처럼 지원하고 5000여 포교사가 사찰을 비롯해 군 · 병원 · 복지관 등 포교 현장을 누비고 있다. 특히 종단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부대가 위치한 오지를 찾아가고, 철야 염불봉사를 하는 등 포교일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방창덕 포교사단장은 "코로나19로 포교전법에 제한이 있지만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며 위기를 극복하자"며 "선지식들의 법문을 자주 듣고, 평소 닦은 수행정진력을 바탕으로 나와 가족, 이웃의 행복과 사회 안녕을 기원하며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20주년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전법포교에 매진한 포교사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향란 충북지역단 포교사가 총무원장상 개인상을, 울산지역단 군포교 문수팀(팀장 배정숙)이 총무원장상 단체상을 수상했다. 또 서울지역단 여원태 포교사와 남부총괄통일포교팀 등에게 포교원장상과 총재상 등을 수여했다.

특히 김향란 포교사는 안성 파라밀요양병원서 매월 칼국수 보시를 꾸준히 하고 있어 귀감이 됐다.

20주년 기념식 후 포교사단 집행부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포교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백만원 력결집불사 기금 5916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한 각종 전법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포교와 전법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으로 조계종 포교사로서 긍지를 갖고 시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자"고 포교사들을 격려했다.

한편, 포교사단은 올해 포교사단의 역사와 포교사 활동을 담은 포교사단 20년사 발간과 포교 다큐 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단복 개선 완료와 통일의 식집 발간 및 교육 등도 진행한다. 이밖에 포교원과 함께 5대 수행법 정착을 위한 생활의례 확립 등에도 앞장선다.

이와 함께 감소추세를 극복하고 반등에 성공한 신규포교사 확보를 위해 불교대학 홍보 등에도 역주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9월 12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팔재계수계법회를 열고 새롭게 원력을 모으는 것을 준비 중에 있다.

숫자로 보는 조계종 포교사단

5000명
2020년 현장 포교사

13000명
2020년 동문 포교사

14지역단
LA포함 전국 조직화

340팀
군 · 장애인 · 염불포교팀 등

코로나로 조촐한 행사 마무리
9월 12일 서울광장서 수계법회
백서 발간, 유튜브 전법 준비 중



6월 7일 해인사서 봉행된 '한국전쟁 70주년, 해원과 상생을 위한 수륙대재'서 국군, 북한군, 유엔군, 중국군, 민간인 영가를 재현한 사람들이 오로단을 지나고 있다.

"한국전쟁 희생자 왕생극락 기원"

해인사 한국전쟁 70주년 수륙대재 봉행

천년고찰 가야산 해인사가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138만 무주고혼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6월 7일 대적광전 앞 비로탑 앞마당에서 '한국전쟁 70주년, 해원과 상생을 위한 해인사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수륙대재는 한국전쟁 당시 희생당한 고혼을 추모 · 천도하는 법회로 상생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인사는 국가와 이념을 넘어 한국군 뿐 아니라 모든 희생자를 추모하고 오색 10만 위령등을 밝혔으며 추모음악회, 추모사진전 등도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추모 법어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한 지 70년이 흐른 지금 현충일을 맞이하여 분노와 갈등이라는 공업을 치유하고자 해인사에서 수륙대재를 봉행한다"며 "전쟁으로 희생된 영혼들은 해원의 염원을 담은 정성스런 수륙대재 공양을 받으시고 본심으로 돌아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누리라"고 설했다.

한편, 수륙대재에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호계원장 무상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군종특별교구장 혜자 스님을 비롯해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 진선미 · 정희용 · 김영배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합천 해인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남한산성 사찰 불사 '공명소첩' 발견

정각스님, 本紙에 제보해
공명첩 인증한 희귀 문서
남한산성 불사 확인 사료

남한산성에 존재했던 9개 사찰의 불사를 확인할 수 있는 희귀 문서가 새로 발굴됐다.

고양 원각사 주지 정각 스님은 새로 발견한 희귀문서인 '공명소첩(空名小帖)'을 본지에 제보했다.

해당문서는 도광 8년(1828년 · 순조28년)에 작성됐으며, 남한산성 사찰 중수 및 관아 보수의 공덕에 따라 김시점(金時漸)이라는 인물에게 공명첩(空名帖)을 발행한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실제로 이 같은 공명첩 발행에 대한 내용은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에서 확인된다. 기록에 따르면 광주부유수(留守) 이지연이 남한산성 9개 사찰 및 관아 보수와 관련해 공명첩 200장을 발급했고, 새로 발견된 문서는 이를 증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각 스님이 새로 발굴한 '공명소첩'. 남한산성 9개 사찰의 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새로 발굴된 문서는 '공명소첩'으로 '공명첩'에 대한 일종의 인증서이다. 이는 공명첩 위조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했다. 공명첩에 비해 공명소첩은 발굴되지 못했던 사료다. 전국적으로 확인된 공명소첩은 63건 밖에 없다.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은 "공명첩과 공명소첩은 내용이 다르다. 공명첩은 첩을 받는 사람의 혜택을 기록했다면, 공명소첩은 어떠한 이유로 혜택을 받는지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명소첩'은 남한산성 내 9개 사찰의 중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추정할 수 있어 의미를 더한다.

자료를 발굴한 정각 스님은 "공명첩 발급을 기록한 공명소첩은 희귀하고 당시 남한산성 소재 9개 사찰의 중창 관련 예를 알려주는 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 선원 수좌들 하안거 정진 시작

6월 6일부터 석 달간

불기2564년 경자년 하안거 정진이 6월 6일부터 석달동안 전국 선원에서 진행된다.

조계종 산하 전국 100여 선원은 6월 6일 하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하고 총림 방장 스님들의 결제법어를 청해 듣고 안거 정진에 들어갔다. 전국선원수좌회에 따르면 올해 하안거에는 200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이 일대사 해결을 위해 방부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자년 하안거 결제일은 음력 4월 15일인 5월 7일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윤달 음력 4월 15일로 결제일을 변경했다.

신성민 기자

〈종정 · 총림 방장 결제 법어 5면〉